

부문별 주요동향

» 2008년 5월 북한경제 동향	69
» 대내경제	85
» 농업 및 식량	89
» 대외경제	92
»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96

2008년 5월 북한경제 동향

1. 개관

지난 5월의 북한경제는 산업과 무역부문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식과 농업과 식량부문에서 감지되는 우울한 소식들이 서로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북한의 계획당국은 석탄·전력 등 이른바 4대 선행부문을 중심으로 1/4분기 이후의 월별 생산계획이 초과 달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설비와 공장의 건설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주장은 6자회담의 결과로 주변국들이 약속한 중유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당국 역시 증산경쟁과 경제적 사상무장을 기치로 내걸고 국가의 자원을 이들 선행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평양은 5월부터 대대적인 도시의 새 단장 작업에 돌입했으며, 이를 목도한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의 모습이 예상과 달리 매우 활기차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은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잘 나타났다.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의 여러 기업소와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대만 등 18개국 22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공작기계와 전자설비, 운송장비, 일용품 등을 전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전람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전람회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의 ‘신비’ 제품을 구하려는 손님들로 붐비었다’ (조선신보, 2008.5.21)거나 ‘일부 쇼핑광들은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좀 더 쇼핑할 기회를 달라고 주최 측에 요구’ (연합뉴스, 2008.5.31)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각 지역에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시장의 곡물가격이 쌀을 기준으로 kg당 3,000~4,000원으로 폭등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의 발생을 목격했다는 보고도 나타났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외부세계의 인식 차이가 점점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관찰자들은 북한이 현재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세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5~6월에만 수십만명이 아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관찰자들은 현재 외부세계가 인식하는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부른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이 표면으로 부상하면서 WFP 등 국제기구는 6월중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5월에도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지속되는 한편, 한국 역시 현재의 경색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의 1억 3천만 달러에 비해 8.6%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1월~4월 동안의 누적교역액이 5억 6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교역은 이제 일정 정도 자생력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교역이 완전한 자생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올해의 남북교역 역시 부침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대내 경제

북한당국, 1/4분기 이후에도 산업생산 호조 주장

지난 5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1/4분기 이후에도 북한의 산업생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북한 전체 에너지원의 60~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생산이 4월 중에도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6자회담을 통해 주변국들이 제공하는 중유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력 부문 사정 또한 한층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김책제철소와 같은 주요 철강업체들의 경우 자재부족으로 일시적인 조업 중단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러한 철강업체들의 조업중단을 무기로 6

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중유와 코크스탄 등 주요 원재료를 조기에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토대로 주변국들의 에너지·원자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산업부문이 한층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 금년도 석탄부문 월별 생산성과(북한방송)

1월	2월	1/4분기	4월
“성과적”	“책임자각혁신”	계획대비 112%	“넘쳐 수행”

이처럼 외부의 지원으로 전력·석탄 등 일부 산업부문이 활기를 보이면서, 이를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북한당국의 노력 역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이른바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각 기업·산업간 생산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각 기업 및 공장이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는 올해의 ‘선군봉화상’을 받는 모범업체로서 선정되어, 전체 인민과 경제의 귀감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집단경쟁의 강조는 각 산업 내부 기업들의 구체적인 중산경쟁으로도 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올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석탄산업의 경우 각 탄광기업들이 석탄증산을 위한 ‘고속도 굴진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탄생산의 혁신과 노동력의 동원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89호, p.6 ‘석탄공업성 4월 석탄생산계획 완수 보도’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0호, p.3 ‘고속도 굴진 사회주의경쟁 성과 보도’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p.3 ‘원산청년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보도’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p.4 ‘창광음식점거리 개선보수 공사 진행 중’
- *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8, p.5 ‘4월 각 부문 경제계획 달성’
- *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21, p.8 ‘북 식량위기 속 평양은 새단장 활기’
- * 로동신문,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활발”, 2008.5.2
- * 로동신문, “선군정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근본원천”, 2008.5.4
- * 로동신문,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2008.5.10
- * 연합뉴스, “북,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6자회담 덕분”, 2008.5.28

북한 식량난은 더욱 악화(?), 그러나 이에 대한 외부세계의 논란 역시 본격화

이러한 산업부문의 회복세와는 정반대로 농업부문에서는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황해도를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시장 곡물가격이 kg 당 3000~4000원(쌀의 경우)을 능가할 정도로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와 관련 일부 NGO들은 지난 4~5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거의 모든 群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당국 역시 이제는 식량난을 굳이 부인하려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반대로 지난 5월 노동신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발생’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주민이 합심하여 알곡증산에 매진해야 한다’ 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물론 노동신문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먹는 문제’ 의 해결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세계의 주요 의제가 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감을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5월 북한의 일부 당국자 역시 현재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렇듯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공식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감은 당연히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논의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북지원 방안 역시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매우 역설적으로 그간 잠재되어 있던 북한식량 상황에 대한 논란 역시 표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식량 공급이 과연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에 대해서는 한국 농촌진흥청의 추정치(401만톤, 2006년에 비해 약 10~12% 하락)와 FAO의 추정치(380만톤, 2006년에 비해 약 8% 하락), 그리고 FAO가 북한통계를 이용해 발표한 추정치(300만톤, 2006년에 비해 약 25% 하락) 등이 서로 모두 제각각이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어떤 기관이 어느 때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달라지는 형편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한 식량이 (밀가루 등 곡분을 제외한) 곡물의 경우에만도 약 26만 톤으

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수량으로는 23만 톤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연 올해 북한의 식량공급이 전년도에 비해 실제로 부족한 것인지, 만일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논란은 현재의 식량난으로 피해를 받는 계층이 과연 누구인가와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시장의 식량가격 상승으로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시장을 이용하는 계층은 일종의 특수계층이며, 따라서 애초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은 이번 시장가격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계층은 돈을 주고 식량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국가의 식량배급을 받는 ‘배급제 계층’인 동시에,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시장 활동에 뛰어들어 추가적인 소득을 획득하고자 하는 북한판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기도 하다. 반면, 북한의 취약계층은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 중산층과는 달리 소득이 전혀 없어 아예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직장이 없어 배급도 받지 못하고, 돈도 없어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산이나 들을 떠돌며 패기밭 등을 개간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은 애초부터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등락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NGO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2007년의 경우에도 일부 주민이 아사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들이 시장과는 무관한 이들 특수계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제사회가 단순히 북한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식량을 지원한다면, 그 혜택은 북한의 진정한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북한판 중산층에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현재 북한이 외부세계의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또한 만일 필요로 한다면 외부세계는 누구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하는가의 논란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재 북한의 대다수 주민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경우 북한당국이 이를 통제하여 그 일부를 전략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잠재적 논란이 급기야 표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을 둘러싼 외부세계의 논란이 확산되자 WFP 등 국제기구

는 6월 중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의 식량사정을 구체적으로 실사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현지 실사는 추후 외부세계의 북한상황 평가와 그에 따른 대북지원 논의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p.15 ‘미국의 식량지원 계기 북미간 신뢰증진 주장’
- *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8, p.22 ‘미, WFP와 대북식량지원 논의…결론은 아직’
- *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8, p.23 ‘북식량난 10년래 최악 …또다시 기아사태 임박’
- *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9, p.7 ‘북한주민 20만-30만명 두 달 내 아사 가능성’
-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8 제125호, p.4 ‘입에 풀칠하려다가 갓난아기와 영영 이별’
- * 연합뉴스, “북 일부지역 아사자…전 지역 확산”, 2008.5.8
- * 연합뉴스, “북 식량 자체 해결이 사회주의 고수에 긴요”, 2008.5.10
- * 로동신문,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 2008.5.10
- * 연합뉴스, “북 황북 곡산군도 아사자 속출”, 2008.5.27
- * 연합뉴스, “북 식량난 6월 중순까지 가장 급박”, 2008.5.27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북한경제에 毒인가 藥인가?

최근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올해 10~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 인구센서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인구센서스는 1993년 북한에서 처음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이후 무려 15년 만에 다시 실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센서스이다. 또한 이번 센서스는 1993년의 센서스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문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된 센서스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3년 북한 센서스는 1) 1994년도에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실시되는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2) 북한 군대를 비롯한 이른바 특수인구에 대한 조사내용이 논란을 불러오는 등 그 결과에 의문점이 존재하고, 3) 센서스의 실시과정에서 외부의 모니터링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센서스는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위해 UN인구기금이 북한에 상주하여 센서스의 전 과정을 자문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따라서 만일 이번 센

서스가 현재의 기대대로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북한 인구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질문은 북한이 왜 이처럼 민감한 인구센서스를 현 시점에서, 그것도 외부의 모니터링을 감내하며 실시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같은 저개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실시되는 인구센서스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나는 향후의 체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현재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센서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북한당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사 자국의 중요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북한당국은 이번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경제개혁 또는 구체적 경제발전 정책을 스스로 발표할지도 모른다. 반면, 이번 센서스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가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 인구자료들을 이번 센서스에서 수집하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해석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더욱 현실에 부합할지와 관련하여 이번 인구센서스와 그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재미있을 것이다.

* 연합뉴스, “北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2008.5.13

3. 대외 경제

2007년 북한무역 전년비 9% 증가 - 남한과 중국에의 의존도 심화

KOTRA가 발표한 ‘북한대외무역동향보고’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9억 4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3% 감소한 9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0억 2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되었다. 특히 북중교역이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이 67.1%(2006년은 56.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광물질의 수출입과 기계류, 철도차량 및 부속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KOTRA가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무역통계에는 남북교역 실적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KOTRA의 통계에 남북교역을 합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추계해 보면, 우선 북한의 총 무역규모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년대비 9.0%가 증가한 4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년 북한의 총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3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비중을 합치면 전체 북한무역의 80% 정도로서 이 두 나라가 북한의 대외무역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교역국인 태국의 비중은 7.8%에 불과하고, 그 규모 역시 2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무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일무역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2007년의 북한의 무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은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표 2】 북한의 국가별 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무역총액	남한		중국		일본		기타 국가		남한과 중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0	2,395	425	17.7	488	20.4	464	19.4	1,018	42.5	913	38.1
2001	2,673	403	15.1	738	27.6	475	17.8	1,057	39.5	1,141	42.7
2002	2,902	642	22.1	738	25.4	369	12.7	1,153	39.7	1,380	47.6
2003	3,115	724	23.2	1,023	32.8	266	8.5	1,102	35.4	1,747	56.1
2004	3,554	697	19.6	1,386	39.0	252	7.1	1,219	34.3	2,083	58.6
2005	4,056	1,055	26.0	1,580	39.0	194	4.8	1,227	30.3	2,635	65.0
2006	4,346	1,350	31.1	1,700	39.1	122	2.8	1,174	27.0	3,050	70.2
2007	4,739	1,798	37.9	1,974	41.7	9	0.2	958	20.2	3,772	79.6

주: 무역규모에는 결제성거래 및 비결제성 거래를 모두 포함.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그런데 2007년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양국의 무역형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교역의 경우 상업적 베이스로 거래하는 형태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의 비중이 2007년의 경우 43.9%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공업협력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이동에 따른 결과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5년 북중교역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무역, 위탁가공무역, 변경무역이 점하는 비중이 81.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북중교역은 거의 대부분 상업적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남북교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역형태가 전체의 50%를 넘는다는 뜻이다.

최근 북한의 대중 의존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우리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그 근거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대북 무역패턴을 볼 때 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북중교역은 거의가 상업적 베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남북교역은 여전히 상업적 베이스보다 비상업적 베이스인 경제협력에 따른 물자의 반출입 비중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다.

- * 연합뉴스, “북-중 다방면 교류강화 눈에 띄네”, 2008.5.1
- * KOTRA, “북한,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2008.5.23
-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p.6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 통일부, 통계자료-남북교류협력분야. <http://www.unikorea.go.kr/>
- * VOA,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 5년 연속 증가”, 2008.5.23

북한,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북한은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람회는 1998년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가을철에도 열리고 있는 북한 최대의 상품전이다. 국제상품전람회는 선진상품과 기술정보 획득, 대외합영, 합작사업의 확대, 그리고 대외무역 확대 등을 목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의 기업소와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시리아, 독일, 영국, 대만 등 18개국 220여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특히 중국에서 120여개, 대만에서 30여개의 업체가 대규모로 참여하였다. 이 전람회에 출품된 분야는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운송장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전람회의 특징을 보면 중국기업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었고, 최근 북한과 EU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반영해 비록 참여기업은 적었지만(독일은 예외적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 많은 EU 국가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 대기업이 참가할 경우 ‘대리점’ 간판을 걸고 참가했으나 이번에 참가한 ‘하이얼집단전기산업유한공사’ ‘칭도하이얼특수극동기유한공사’, ‘TCL해외전자유한공사’ 등은 본사가 직접 나섰다는 보도도 있다.

한편 이번 전람회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관심도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와 외부세계의 평가가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선신보」(2008.5.21)는 “국제상품전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국제상품전람회는 경제활동과 상품개발의 세계적 추세를 직접 볼 수 있는 마당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요구하는 제품을 어느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이곳 전시장은 전람회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의 ‘신비’ 제품을 구하려는 손님들로 붐비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평가와는 달리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장에서는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북한 엘리트층들이 외국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일부 쇼핑광들은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좀 더 쇼핑할 기회를 더 달라고 주최 측에 요구했다” 라는 표현으로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8.5.31).

- * 연합뉴스, “북 상품전람회에 180여 외국기업 참가”, 2008.5.9
- * 연합뉴스, “평양, 외국 대표단으로 북적”, 2008.5.15
- * 조선신보,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아시아, 유럽 등 180여개 외국기업참가”, 2008.5.16
-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1호, p.5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 * 조선신보, “아시아, 유럽경제교류에 큰 관심: 성황을 이룬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008.5.21
- * VOA, “중국산이 휩쓴 제11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2008.5.23
- * 데일리 NK, “북 굶어죽어도 특권층은 수입품 열광”, 2008.6.1

4. 남북경협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신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북한은 신정부에 대해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정리와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본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도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백일(6월 3일)을 앞두고 노동신문의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논평하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 ‘경제협력 4대원칙’, ‘상호주의’, ‘퍼주기 비판론’, ‘대북 인도지원’, ‘한미동맹 우선론’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형성하는 근간에 대해 항목별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도 소위 ‘이명박 정부 100일 백서’를 발표하고 ‘비핵·개방·3000’ 등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내외 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신정부 출범이후에 보였던 북한의 반응, 즉 “두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존중”이라는 큰 틀에서 여전히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6.15선언 및 10.4선언의 존중과 그 이행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남북경협의 4대원칙(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을 표명한 이후 여전히 담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7대 국회의 회기가 지난 5월 29일로 끝나면서 10.4선언의 이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의 비준 동의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되었고, 이에 따라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남북교역 및 개성공단사업은 더욱 활발

이처럼 신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역액은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역시 반출입 규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교류협력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08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 3천만 달러에 비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2008년 1월~4월 동안의 총 교역액은 5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전년도 동기간의 총 교역액인 4억 1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36.6%나 증가한 액수이다. 개성공단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개성공단의 2008년 4월 중 총 교역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의 3억 2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81.9%가 증가한 액수이고, 또한 금년 1월~4월까지의 총 교역액은 2억 2천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간의 1억 2천만 달러에 비해 88.2%나 급증한 액수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반출입 품목을 보면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에서부터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그리고 섬유, 철강, 기계 및 전기전자, 잡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남북한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731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7,754	693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699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716	724,217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777	697,040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21,215	1,093	1,055,753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33,451	1,118	1,349,739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51,758	1,252	1,797,896
소 계	76,767	2,249	2,772,575	77,703	4,830	4,321,905	154,470	7,079	7,094,480
2008.01	2,573	221	68,930	3,035	496	71,573	5,608	717	140,503
2008.02	2,001	181	59,904	2,368	427	58,981	4,369	608	118,885
2008.03	2,513	209	79,310	2,884	460	78,587	5,397	669	157,897
2008.04	2,397	213	72,751	2,576	432	71,497	4,973	645	144,248
소 계	9,484	824	280,895	10,863	1,815	280,638	20,347	2,639	561,533
총 계	86,251	3,073	3,053,470	88,566	6,645	4,602,543	174,817	9,718	7,656,013

주: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남북교류협력동향 4월호, 통일부

표 4 | 개성공단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품 목	2007년		2008년		증가율(%)	
		4월(A)	1~4월(B)	4월(C)	1~4월(D)	C/A	D/B
반 입	농림수산물	2	3	0	5	-100.0	115.2
	광산물	0	0	0	4	-26.4	2,273.1
	화학공업제품	161	696	156	623	-2.8	-10.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425	1,904	515	1,927	21.3	1.3
	섬유류	775	2,534	8,681	25,362	1,020.0	901.0
	생활용품	1,737	6,697	2,651	7,938	52.6	18.5
	철강금속제품	922	5,755	430	1,193	-53.4	-79.3
	기계류	1,410	6,644	4,019	13,482	185.0	102.9
	전자전기제품	776	3,823	5,962	17,846	668.5	366.9
	잡제품	2	6	14	67	810.9	993.1
	소 계(금 액)	6,209	28,060	22,428	68,448	261.2	143.9
반 출	농림수산물	930	2,486	1,434	4,928	54.1	98.3
	광산물	1,314	5,670	1,838	8,090	39.9	42.7
	화학공업제품	1,778	5,642	2,176	8,066	22.4	43.0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584	1,561	1,350	4,390	131.3	181.2
	섬유류	2,707	8,684	6,120	29,348	126.0	237.9
	생활용품	1,746	6,730	1,241	7,786	-28.9	15.7
	철강금속제품	3,882	16,945	6,862	25,589	76.8	51.0
	기계류	8,539	21,789	9,190	40,963	7.6	88.0
	전자전기제품	4,854	20,438	6,561	24,459	35.2	19.7
	잡제품	1	5	16	84	2,060.3	1,570.6
	소 계(금 액)	26,336	89,951	36,787	153,703	39.7	70.9
총 계(금 액)	32,545	118,011	59,215	222,151	81.9	88.2	

자료: 남북교류협력동향 4월호, 통일부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신정부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이며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경색국면에서 볼 때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남북한 모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성공단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5년이 지나 이제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마도 이제 남북간의 교역에 있어, 적어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에 있어서는 점차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덜 받게 될 만큼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지속 및 확대여부가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수위를 낮추어주는 나름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사업처럼 비록 정부지원이 뒷받침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대북사업의 경우 신정부가 표명한 남북경협 4대원칙과 전혀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지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연합뉴스, “통일차관, 북핵해결, 남북관계 발전 함께 이뤄져야”, 2008.5.16
- * 한겨레, “남북경색, 우리가 바뀌면 그들도 바뀔 것”, 2008.5.19
- * 매일경제, “일방적으로 퍼주지 말되 대치하지도 말아야”, 2008.5.19
- * 연합뉴스, “새정부 햇볕정책 장점 받아들여야”, 2008.5.20
- * 연합뉴스, “경제적 관점 접근 남북관계에 긍정효과, 10년간 추진한 포용정책 포기해선 안돼”, 2008.5.21
- * 연합뉴스, “임동원, 이 대통령에 6.15, 10.4 수용 표명 촉구”, 2008.5.28
- * 연합뉴스, “남북총리회담 비준동의안도 자동폐기”, 2008.5.29
- * 연합뉴스, “정세현 햇볕정책 연장선상서 대안 찾아야”, 2008.5.30
- * 연합뉴스, “北, 이명박정부 백일 앞두고 종합 논평”, 2008.5.30
- * 연합뉴스, “北, 이명박정부 100일 백서발표”, 2008.6.1

부문별 주요동향 집필진

고일동: 총괄
 이 석: 대내경제
 김상기: 대외경제
 이재호: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부문별 주요동향(5.1~5.30)

대내경제	85
로동신문,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활발’	85
로동신문, ‘선군정치…사회주의의 우월성·생활력의 근본원천’	85
북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85
북,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6자회담 덕분	86
‘고속도 굴진 사회주의경쟁’성과 보도	86
4월 각 부문 경제계획 달성	87
미, WFP와 대북식량지위 논의…결론은 아직	87
북 식량위기 속 평양은 새단장 활기	88
농업 및 식량	89
북, 일부지역 아사자…전 지역 확산	89
로동신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알곡생산…투쟁’	89
북 식량 자체 해결이 사회주의 고수에 긴요	89
북, 황북 곡산군도 아사자 속출	90
북, 식량난 6월 중순까지 가장 급박	90
미국의 식량지원 계기 북미간 신뢰증진 주장	90
북 식량난 10년래 최악…또다시 기아사태 임박	91
북한주민 20~30만명 두 달 내 아사 가능성	91
입에 풀칠하려다가 갓난아기와 영영 이별	91
대외경제	92
중, 북 인력 유치해 단둥에 애니메이션단지 건설	92
북, 지재권 보호·장려 중장기전략 추진	92
북, 남-북-러 철도연결 전 세계의 관심	92
북-베트남, 무역·투자 협력 합의서 서명	93
북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93

북, 나선지역 투자 남기업에 면세입장	93
러 철도공장 사장, 북측 하산-나진사업에 한국 참여 동의	93
아시아, 유럽경제교류에 큰 관심(평양국제상품전람회)	94
북,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94
북-중 밀무역 크게 위축, 북 심각한 물자난	95
2008년 1/4분기 북중무역동향	95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96
통일차관, 북핵해결·남북관계발전 함께 이뤄져야	96
일방적으로 퍼주지 말되 대치하지도 말아야	96
새정부 햇볕정책 장점 받아들여야	96
경제적 관점 접근 남북관계에 긍정효과, 10년 포용정책 불포기	97
임동원, 이 대통령에 '6·15, 10·4 수용'표명 촉구	97
남북총리회담 비준동의안도 자동폐기	97
정세현 '햇볕정책 연장선상서 대안 찾아야'	97
북, 이명박 정부 백일 앞두고 종합 논평	98
북, 이명박 정부 100일 백서 발표	98

대내경제

로동신문,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활발'

“각지 공장, 기업소의 직맹조직들에서는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인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 보도(「로동신문」, 5. 2).

로동신문, '선군정치...사회주의의 우월성·생활력의 근본원천'

“우리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가장 우월하고 공고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밝혀져있다” 고 보도(「로동신문」, 5. 4).

북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인구조사 준비가 북측의 “협조적인 태도” 로 설문지 작성 작업이 끝나는 등 “본격단계에 들어갔다” 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함. 최근 평양 방문 후 베이징으로 돌아간 버나드 코클린 UNFPA 중국사무소장은 “북한이 UNFPA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다행히 북한 당국이 열린 자세로 잘하려는 의욕이 넘쳐 인구조사의 질이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함(「연합뉴스」, 5. 13).

북,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6자회담 덕분

주로 평양지역에 난방용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의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컴퓨터자동화가 이루어졌고, 발전시설 증설은 추진중이라고 보도. 북한의 다른 발전소가 불을 붙이는 착화연료로만 중유를 쓰고 발전 기본 연료로는 석탄을 이용하는 데 반해 이 발전소는 중유를 주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6자회담 참여국들의 대북 중유제공의 최대 수혜자인 셈임(「연합뉴스」, 5. 28).

석탄공업성 4월 석탄생산계획 완수 보도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남보다 먼저 4월 석탄생산계획을 끝낸 데 이어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득장과 구장, 강동과 온성, 명천과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들이 4월 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석탄생산자들은 부족되는 막장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앞선 굴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채취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전을 들이대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생산했다'고 「중앙방송」이 보도(「통일부」, 북한동향 제889호).

'고속도 굴진 사회주의경쟁' 성과 보도

"석탄공업성에서는 올해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계획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당면하게는 2.8직동청년탄광 능력확장을 위한 고속도 굴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이 사업에 성안의 모든 일꾼들과 각지 석탄 생산자들을 발동시키고 있음." "1단계 굴진경기에는 배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이 참가하였으며, 2단계 굴진경쟁에는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굴진공들이 참가하여 첫 시작부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중앙방송」이 보도(「통일부」, 북한동향 제890호).

원산청년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보도

원산청년발전소 언제쌍기와 물길굴, 수력구조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끝낸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설비조립을 비롯한 남은 공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그 결과 장마철 조건에

서 언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조립된 발전기들이 전력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 또한 원산청년발전소 2단계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착암기를 비롯한 부족되는 굴진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갱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관광음식점거리 개선보수 공사 진행 중

북한은 관광봉사관리국 주도 하에 평양 관광음식점거리 개선보수 공사를 본격 진행 중임. 종전의 건축형식을 살리면서 건물 특성에 따라 일부 식당 앞면을 내어 확장하고 타일·돌·외장재 등 고급건재로 외관을 꾸미는 한편, 간판 디자인을 개조하고 조명을 설치함. 식당 내부 홀을 넓히고 식탁·의자 등 비품을 교체하며 주방시설을 최신 설비로 바꿔 요리와 위생의 수준을 높이고, 급수망 및 난방설비 개조를 통해 식당 관리운용을 제고. 또한, 관광음식거리 인도 피치포장을 걷고 돌로 장식하는 등 거리조성도 병행(「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4월 각 부문 경제계획 달성

「평양방송」은 4월 전력, 석탄, 철도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4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했다고 주장. 월 전력생산계획을 109.6%로 수행했고, 월 석탄생산계획을 101.1%로 끝냈으며, 월 수송계획을 100.3% 달성함(「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8).

미, WFP와 대북식량지원 논의…결론은 아직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하고, “우리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식량 또는 인도적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조건으로 다는 일은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우리의 기준은 밖으로 드러난 필요성이 있고, 그런 지원이 실제로(식량부족 등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8).

북 식량위기 속 평양은 새단장 활기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져 대량아사 발생이 임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평양 거리는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고 최근 방북하고 돌아온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전언함. 평양을 방문했던 한 관계자는 “식량난 분위기는 평양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평양 시내 도로를 아스팔트로 새로 포장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예전보다 더 활발했다”고 소개, 북한 당국이 지난달부터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함께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공사를 중단해 흉물처럼 남아있던 류경호텔의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짐(「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21).

농업 및 식량

북, 일부지역 아사자...전 지역 확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북한의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은 이미 예견됐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에서도 이미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66만t으로, 작년 부족분의 2배에 달하고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봄. 식량부족이 심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쌀가격은 물론 그 여파로 옥수수 등 다른 대체 곡물 가격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에 직접 타격이 가해지고 있음(「연합뉴스」, 5. 8).

로동신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알곡생산...투쟁'

“전체 인민의 양양된 혁명적 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켜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현시기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 이라고 보도.(「로동신문」, 5. 10).

북 식량 자체 해결이 사회주의 고수에 긴요

「로동신문」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라는 긴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시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 전선이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알곡생산을 늘이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대한 과업은 없다며 농사는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 이라고 전함(「연합뉴스」, 5. 10).

북, 황북 곡산군도 아사자 속출

「좋은벗들」에 따르면 약 1만 5천 명의 노동자가 2006년과 지난해 잇따른 흉수로 파괴된 곡산군 미루벌의 관개수로 공사에 동원됐다며 이들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힘. 이들은 북한의 중앙 정부로부터 별다른 공급과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 옥수수 한 줍과 소금으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한) 중앙당 간부가 돌아간 뒤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이 동원 인력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지는 주장(「연합뉴스」, 5. 27).

북, 식량난 6월 중순까지 가장 급박

한 간담회에서 이혜옥 세계식량계획(WFP) 서울사무소 대표는 “올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 식량 사정을 조사한 결과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부족 상태로 파악됐다”며 식량 부족량을 166만t으로 추정. “이 수치는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로, 북한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WFP의 입장”이라고 이 대표는 말하고 앞으로 1년안에 약 60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북한이 2005년에 긴급구호 사업보다는 개발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대북 식량 지원을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지만 다시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가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5. 27).

미국의 식량지원 계기 북미간 신뢰증진 주장

「중앙통신」은 “미국정부의 식량제공은 부족한 식량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북-미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 이 보도는 식량제공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오늘의 사태진전을 적대국들 사이의 ‘신뢰증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었음(「통일부」, 북한동향 제892호).

북 식량난 10년래 최악...또다시 기아사태 임박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30일 피터슨연구소가 ‘북한식량위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10년전 기근사태가 끝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지적.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북한의 식량부족을 기술적인 이유로 매년 과대평가해 식량공급이 필요한 곡물의 양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이는 빨간 불이 켜지기 직전의 노란 불 경고 신호”라고 말했음(「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8).

북한주민 20~30만명 두 달 내 아사 가능성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6월 두 달 사이에 20만~30만 명이 굶어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의 법륜 스님이 발표. 북한의 식량난은 95~96년의 대기근 때와 아주 비슷해 평안남도 양덕군과 황해도 사리원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 벌써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주민들이 옥수수대와 풀뿌리로 연명하는 단계에 들어가 5~6월 사이에 수 십 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륜 스님은 추산, 또 90년대에는 함경도와 황해도 등 일부 지역에서 기근이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최근엔 북한내 전 지역에서 기아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8-19).

입에 풀칠하려다가 갓난아기와 영영 이별

「좋은 벗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갓 결혼하고 해산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여성이 입에 풀칠하려고 장사하러 집을 나섰다가 등에서 아이가 죽는 참담한 일을 겪은 사건을 보도함(「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8 제125호).

대외경제

중, 북 인력 유치해 단둥에 애니메이션단지 건설

중국이 북한의 애니메이션 인력을 유치해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에 콘텐츠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단둥에 설립될 하청기지는 애니메이션영화와 게임에 들어가는 원화를 제작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됨. 그리고 향후 단둥의 하청기지를 통해 중국 전체 수요의 80%에 달하는 연간 5천 시간 분량의 애니메이션 원화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중국통신」은 전함(「연합뉴스」, 5. 2).

북, 지적권 보호·장려 중장기전략 추진

북한 당국은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그러나 이 전략의 세부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는 ‘상표법’ (1998.1 제정), ‘발명법’ (1998.6), ‘저작권법’ (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2003.6), ‘원산지명법’ (2003.8) 등이 있음(「연합뉴스」, 5. 2).

북, 남-북-러 철도연결 전 세계의 관심

북한 철도성의 김철 부상은 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철도 설계검사를 끝냈다고 밝히면서 “조선반도의 북남과 러시아연방을 통한 이 교통로가 완비되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나라들, 유럽 나라들 사이에는 ‘친선의 다리’ 가 놓이게 될 것” 이라면서 “여러 나라들 사이 경제교류 확대” 를 기대함(「연합뉴스」, 5. 7).

북-베트남, 무역·투자 협력 합의서 서명

북한과 베트남이 상호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고 베트남 통신은 보도. 부 중(Vu Dung) 베트남 차관은 “북한 김용일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무역과 투자 및 문화 스포츠 교류 증진에 관해 합의했으며 지역 포럼과 국제회의 등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밝히고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고 말함(「연합뉴스」, 5. 10).

북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오는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인구조사 준비가 북측의 “협조적인 태도” 로 설문지 작성 작업이 끝나는 등 “본격단계에 들어갔다” 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 UNFPA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조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4만명의 조사요원들이 북한 전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종결과는 자료분석 시간을 감안할 때 빨라야 1년 뒤인 내년 10월께 나올 예정임. 유엔은 북한의 인구를 2천270만명으로, 미국은 2천3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음(「연합뉴스」, 5. 13).

북, 나선지역 투자 남기업에 면세입장

나진·선봉 지역에 남측 기업이 적극 진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수산물 증개무역 업체인 (주)매리의 정한기 중국법인 대표가 전함. 그리고 “2000년부터 북측 나선강성무역회사와 통조림 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는데, 북측은 남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며 “남측 기업이 진출할 경우 면세 조치 등 투자 혜택을 적용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고 말함(「연합뉴스」, 5. 15).

러 철도공장 사장, 북측 하산-나진사업에 한국 참여 동의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북측이 동의했다고 밝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러시아 철도공사가 합영회사를 설립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연장 54km의 철도를 현대화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잇는 사업으로, 남측의 화물을 북한과 러시아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한다는 개념임. 이는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하산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 체결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지분의 70%를 갖는 조건으로 나진-하산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을 설립키로 함. 한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러시아가 보유한 지분 70%를 한국과 러시아가 6대4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한러 합영회사를 설립해 나진-하산 철도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키로 했는데, 이번에 북측이 러시아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탄력을 받게됨. 이에 따라 정부는 6월에 러시아와 합영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을 진척시켜 이르면 8월부터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선박이 나진항에서 철도로 러시아 하산을 거쳐 TSR와 연결되는 루트의 시범 운송을 실시할 방침(「연합뉴스」, 5. 20).

아시아, 유럽경제교류에 큰 관심(평양국제상품전람회)

아시아, 유럽의 기업들 속에서 조선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이러한 국제경제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국제상품전람회는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 사이의 교류와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조선국제전람회에서는 앞으로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조선신보」, 5. 21).

북,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북한의 대외무역이 2년 연속 감소하고,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9억 4천 1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함.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06년 56.7%에서 2007년 67.1%로 크게 증가. KOTRA가 발표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9억 1천 9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0억 2천 2백만 달러. 수출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입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체 대외무역이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함. 국별 교역비중에서는 중국이 67.1%로 1위를 차지함(「KOTRA」, 5. 23).

북-중 밀무역 크게 위축, 북 심각한 물자난

중국의 국경경비가 강화돼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통한 밀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알려짐. 북한 당국은 올해 초부터 ‘비사회주의 요소 척결’이라는 이유로 개인 무역을 엄격하게 통제 한 이후 북중 국경을 통해 밀무역 형태로 소규모로나마 중국으로부터 들어 가던 식량과 생활 물자들이 유입되는 통로가 차단되면서 북한의 식량부족과 물자부족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대북소식통들이 전함(「자유아시아방송(RFA)」, 5. 28).

2008년 1/4분기 북중무역동향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북-중 무역총액은 4억 9천 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9% 증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1억 2천 5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0.5% 증가한 3억 6천 6백만 달러,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225.7% 증가한 2억 4천 1백만 달러임(「통일부 북한동향」, 제890호).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통일차관, 북핵해결·남북관계발전 함께 이뤄져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또한 북핵 문제에 언급,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연합뉴스」, 5. 16).

일방적으로 퍼주지 말되 대치하지도 말아야

북한이 미국에 핵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나오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경색됐던 북·미 관계에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반면 현 정부 출범 후 냉각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나마 어렵사리 얻은 대북관계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매일경제」, 5. 19).

새정부 햇볕정책 장점 받아들여야

새 정부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을 경직되게 운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전 정권이 추구해온 햇볕정책을 무조건 부정만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연합뉴스」, 5. 20).

경제적 관점 접근 남북관계에 긍정효과, 10년 포용정책 불포기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는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로 이어지고, 개방·3000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전략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의 단절만을 강조한다면, 남북간 경색 국면을 장기화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동안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연합뉴스」, 5. 21).

임동원, 이 대통령에 ‘6·15, 10·4 수용’ 표명 촉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며 10.4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두 선언의 수용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함. 또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정립한 강령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합의서와 두 선언은 “연속선상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함(「연합뉴스」, 5. 28).

남북총리회담 비준동의안도 자동폐기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 이행의 세부 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도 자동 폐기됨.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은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를 12일 남긴 지난 2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날까지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연합뉴스」, 5. 29).

정세현 ‘햇볕정책 연장선상서 대안 찾아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

을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 그리고 “비핵·개방·3000은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나,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저평가한 구상”이라며 “또 핵 연계론적 입장에서 있어 부시 정부 초기 대북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함(「연합뉴스」, 5. 30).

북, 이명박 정부 백일 앞두고 종합 논평

「로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용주의를 내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 성격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남관계는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진 동족 사이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특수한 관계로, 민족내부 문제”인데 이런 “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다루면서 실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적 폭거”라고 실용주의 전반을 비난함(「연합뉴스」, 5. 30).

북, 이명박 정부 100일 백서 발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백서를 발표, ‘비핵·개방·3000’ 등 대북정책과 각종 대내외 정책을 강력히 비난. 또한 백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계 발전해온 북남관계가 악화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게 되었다”며 “이명박 패당의 집권 100일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나 다름아닌 그 역적패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연합뉴스」, 6. 1).

자료정리 : 김은영, 이주영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